

현장탐방

이곳이 R&D 현장

바이엘 코롭사이언스(주) 부설 평택연구소

인간·자연·농업으로운 삶에 기여하는 작물과학 개발이 주제

97년 5월 신설 이전, 코니도·실바코·바스타 등 획기적 제품 줄이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고객과 함께 미래 준비

농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농약 개발 및 안전성 홍보의 네 번째 장(場). 지난해 말 용인 연구소의 주요 시설 이전 및 연구소의 혁신적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한 바로 그 곳,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선진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원들의 작업안전 및 환경 친화형 연구시설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춘 바이엘 크롭 사이언스(주) 부설 평택연구소(소장 田炳喆)를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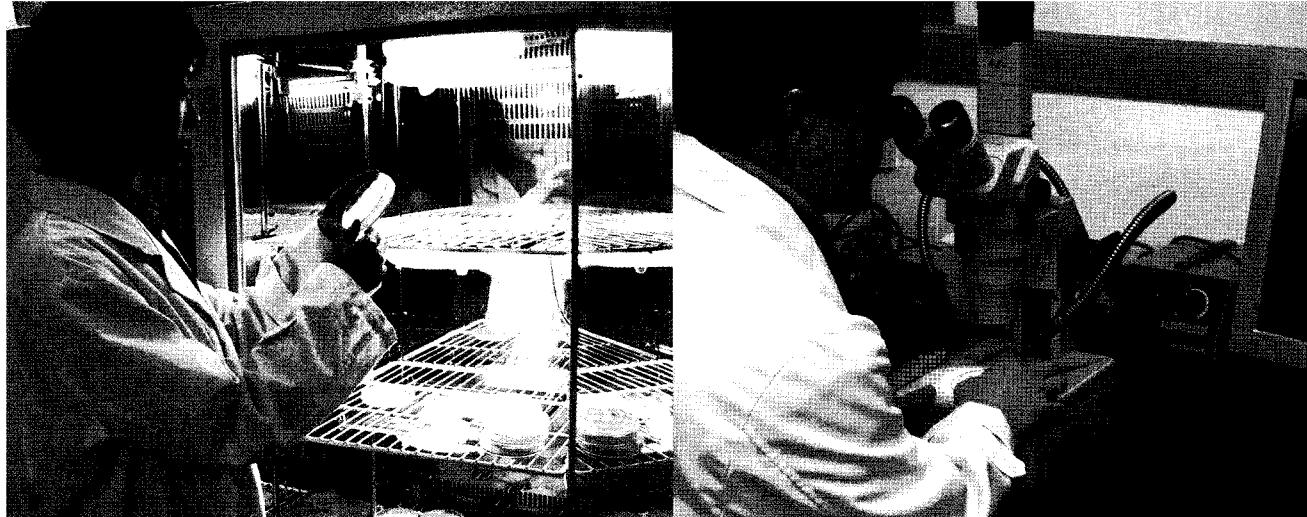
이번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 초부터 평택 중앙연구소와 용인연구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통합과 바이엘 QHSE(품질 보건

환경 안전) 기준에 적합한 연구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지난 2002년 바이엘의 아벤티스 인수합병 발표 이후, 2004년 1월 용인 연구소 연구인력의 평택연구소 재배치 및 기능 통합을 위한 1단계 작업에 이어, 2004년 11월 용인연구소 매각 완료 시점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던 2단계 통합 및 혁신작업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부터 특별 예산을 투입,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코니도·실바코·바스타' 등 널리 알려진 제품 많아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기업 이념인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그리고 글로벌 이념인 '더 나은 삶을 위한 과학' 실현을 위하여 앞서가는 글로벌 혁신 기술과 통합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혁신제품을 설계하고 개발, 제품화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및 환경친화형 연구 개발의 책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田소장은 명실상부한 다국적





기업 연구소 수장으로서 중용의 입장을 내비치며 이 같이 말하고 인적, 물적, 기술적 우월성은 바이엘의 보이지 않는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바이엘 평택 중앙연구소는 1997년 5월, 경기 남부 농업 중심지인 평택시 진위면에 신설, 개소하였다. 1999년 6월에는 ISO 9002 인증을 받았고 2003년 12월에는 ISO 9001로 규격을 변경하였다. 대전 공장은 ISO 4001인증을 신규로 획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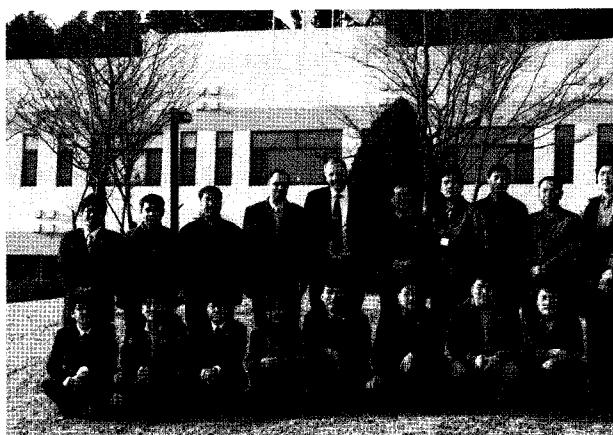
생물연구실, 잔류실, 사무실, 기타 부속건물 등 약 600여평의 건평에다 약 4천평의 시험포장 그리고 잔디밭 정원 등이 5천4백여평에 이르는 등 총 1만평의 규모를 지니고 있다. 살균, 살충, 제초 및 기술보급시험 그룹, 등록 그룹, 잔류 독성 그룹, 연구개발 지원 및 포장관리 그룹 등에서 22명의 연구원들이 국내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인 만큼 그 성과도 적지 않다. 한국 최초의 종자처리 살충제인 '가우초'를 비롯, '기라성' 및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토양처리제 '코니도', 벼물바구미 전문 육묘상자처리제 '칼립소' '리전트', 응애약제인 '시나위', 살균제로는 농민들이 신뢰하는 '실바코', '프린트'가 있고, 제초제로는 논잡초약인 '노난매', '파문' 그리고 비선택성 제초제 '바스타' 등 이미 농업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제품들이 즐비하다.

'선택·집중' 통한 트랜드 선점

"경제성 있는 시장 및 고객 지향적 신제품(글로벌 프로젝트, 국내 개발 및 파트너십 개발 등) 개발을 통한 '선택 및 집중' 개발 전략 구사와 제품수명 주기 관리를 위한 적용확대 시험 및 신제형 개발, 고객의 편익성 제고 및 제품 안전성 기술과 부가서비스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田소장은 연구원 구비덕목으로 "농업은 종합과학이다. 무엇보다 기술이 우선시 돼야한다"면서 "농업·농민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깊이 있는 기술을 구사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농약도 개발할 수 있다"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했다.

타 연구소와의 차별화를 묻는 질문에 田소장



평택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Andrew Orme사장(뒷줄 좌에서 다섯번째), H.Printz 부사장(뒷줄 좌에서 네번째).

은 “경제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품목 중심의 개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농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먼저 잡아내고 초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중심은 역시 친환경, 생력화 등 새로운 조류(New Trend)를 앞서 주도하는 개발전략에 있음을 내비쳤다.

끝으로 田소장은 도심지 소비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농약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가

높은데 반해 우리나라는 편견이 비교적 심한 편”이라고 지적하고 “신물질 개발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의약품보다 적지 않으며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자료 및 투자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각종 매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 다양한 지식과 높은 인식을 소유한 여론 주도층이 유독 농약만은 감성적, 비과학적으로 보려 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해제고를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미니 인터뷰

田炳喆 소장 >>>>>>>>>

■ 국내 농약기업과 하나 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바이엘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검증된 다양하고 우수한 품목 개발능력을 들 수 있겠고 또 농민들의 작물 보호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양질의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의 차별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전방위 품목 안전 관리 체계(Product Stewardship)’의 가동 등 바이엘의 다양한 경쟁우위 요소들을 통합하여 현장에서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능력입니다.



■ 국내 농약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견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농약산업 경기는 농산물 수입자유화 및 자유무역협정(FTA), 일부 왜곡된 친환경 농업정책 등 부정적이고 거시적 정책요소들의 역기능성과 과열 경쟁상태에 있는 유통경로의 불안정성 등의 반시장적인 요인들이 혼재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증가와 기용한 식량생산 요소의 한계는 양적인 농산물 수급불균형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신선한 작물을 선호하는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를 효율적으로 총족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안은 선진국에서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농약의 합리적인 사용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권장하는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의 공론화는 우리 모두의 시급한 당면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새로운 작물재배 패턴 및 뉴 트랜드에 앞서가는 신제품 개발 및 신 시장 개척의 여지는 더욱 크고, 중요한 전략적 개발을 위한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 올해의 주요 계획은?

먼저 새로운 국내외 프로젝트의 효율적, 생산적 통합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며 전방위 품목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양성 개발 및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적 및 국내 기술경영 네트의 구축을 위한 시도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